

생활과 윤리 과목

[생활과 윤리]

1	③	2	①	3	④	4	⑤	5	⑤
6	④	7	④	8	④	9	⑤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4	②	15	②
16	⑤	17	③	18	①	19	③	20	⑤

01. 나는 규범 윤리학, 어떤 사람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 규범적 탐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02. 갑은 맹자(유학), 을은 노자(도가)이다.
 ① 맹자는 인(仁)의 실천으로 충(忠)과 서(恕)를 강조한다.
 ② 맹자는 군자와 선비는 향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노자는 무위가 행해지는 국가를 소국과민이라 하였다. 이는 백성의 수가 적은 국가이다.
03. 제시문은 덕 윤리를 강조한 매킨타이어의 주장이다.
 나. 매킨타이어는 공동체 안에서 덕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보았다.
 라.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가. 매킨타이어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보다 공동체의 선을 강조한다.
04. 갑은 석가모니(불교), 을은 장자(도가)이다.
 ⑤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
 ① 석가모니는 죽음은 괴로움 중에 하나라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죽음도 연기의 법칙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③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④ 장자는 죽음에 대해 태연해야 한다고 보았다.
05.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나. 싱어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라. 롤스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이더라도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가.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롤스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이다.
06. 제시문은 홉스의 주장이다.
 가. 절대 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절대 권력은 양립 가능하다.
 다. 주권자인 절대 권력은 평화와 공동 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권력을 가진다.
 나. 자연 상태에서는 불의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07.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④ 목민관은 청렴의 실천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사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08.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나. 롤스에 의하면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자유)는 기본적 자유이다.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르. 우연성을 이용하여 생기는 결과(경제적 불평등)는 롤스와 노직이 모두 허용한다. 단, 롤스와 노직이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기. 노직은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를 정형의 원리이며, 비역사적이라고 보았다.
 다. 롤스에 의하면 천부적 능력과 같은 우연성의 영향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09.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이다.
 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 안에 사형의 권리가 없다고 보는 반면 칸트는 이에 반대한다. 따라서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 ③ 루소의 경우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 외에 추방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부적절하다.
- ④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다는 것은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는 베카리아에게 하는 비판으로 부적절하다.

10. 강연자에 의하면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규격화, 재생산, 기만, 객체화시킨다.
 ③ 강연자의 입장에 의하면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주체성을 훼손한다.

11. 신문 칼럼은 정보 평등을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12. (가)는 음식에 대한 유교의 올바른 태도를 제시한다. (나)는 음식에 대한 불교의 올바른 태도를 제시한다.
 ⑤ 유교와 불교 사상에 의하면 모두 음식을 먹는 행위도 수양의 일부이다.

13. 제시문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과학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알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①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즉, 미래 세대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③ 요나스는 미리 사유된 위험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예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14.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기. 롤스에 의하면 공격적인 사회(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다. 싱어에 의하면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세계 시민주의적(전 지구적) 의무이다.
 나. 싱어에 의하면 절대 빈곤하더라도 원조의 효과가 없을 경우(부정부패한 국가 등등)에는 원조의 책무를 가지지 않는다.
 르. 싱어가 부정할 입장이다.

15. 갑은 테일러, 을은 칸트, 병은 레오폴드이다.
 기. 생명체에 대한 내재적 선에 근거하여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은 테일러만의 입장이다. 칸트는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에 근거해서 생명체를 함부로 해치지 말라 한다. 레오폴드는 전일론적 관점 즉,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안정성·아름다움에 근거해서 생명체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 전일론적 입장으로 레오폴드만 해당한다.
 나. 이성적 삶의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은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칸트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의무(직접적 의무)는 없으며 그들 존재와 관련한 의무(간접적 의무)를 인정한다. 르. 레오폴드가 부정할 입장이다. 왜냐하면 레오폴드는 전일론자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존속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에 기여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16. 제시된 토론에서 갑은 모든 동물 실험을 반대하지만, 을은 일부 동물 실험만 반대(일부 찬성)한다.

㉔ 을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갑은 이를 부정한다.

17. (가)는 주류 문화 즉 단일한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는 반면, 을은 다양한 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강조한다.

㉔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이다. 달리 말하면(추론해 보자면)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를 부정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는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8. 사상가는 담론 윤리의 하버마스이다.

㉔ 하버마스에 의하면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토론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지양해야 한다.

19. 갑은 현실주의자인 모겐소, 을은 이상주의자인 칸트이다.

㉔ 모겐소에 의하면 정치의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이는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동일하다.

㉔ 칸트에 의하면 영구 평화를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평화) 연맹의 이념의 확산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㉔ 모겐소는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법에는 전쟁 뿐만 아니라 동맹도 있다고 보았다.

20. (가)에 비해 (나)는 X(생식적 가치)를 강조하고, Y(사랑과 무관한 성적 관계)를 부정하며, Z(혼전 성 관계 허용)도 부정한다. 따라서 X는 높고, Y와 Z는 낮다. 따라서 ㉔이 정답이다.